

■ 기념실안내

한국과 일본 등에서 발행되어 있는 하기사항에 관련되는 도서, 논문, 신문 기사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있는 외에 사료와 패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소장 도서·자료

- ① 2.8독립선언운동
- ② 관동대진재
- ③ 재일한국·조선인사
- ④ 재일한국인기독교교회, 한일기독교관계사
- ⑤ YMCA사 (일본·한국)
- ⑥ 기타

■ 사료패널·전시

- ① 2.8독립선언운동관계사료 및 운동경위설명패널
- ②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관계사료 및 경위설명패널
- ③ 기타 기획특별전

■ 각종안내·자료

- ① 한국·국내외 역사관련시설 안내팸플렛
- ②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고려박물관 기타 재일역사관련시설안내
- ③ 기타

■ 기타

- ① 영화 「2.8독립선언 (가칭)」 ('08.9 완성예정)
- ② 인터넷접속 PC설치
- ③ 홀 (9F 및 지하·220명까지 수용가능, 동시통역기기완비), 각종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연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 자료실 오픈시 (별지 기재) 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도서·자료의 열람을 희망하실 경우, 사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학교 등 단체의 교외학습, 국제이해교육 등의 이용을 환영합니다. 내용, 일시 등 요망에 대응해 드립니다.

※ 자료실운영을 도와 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交通案内】



YMCA 는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는, 1844년 영국의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약124개국지역에 있어, 약4500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인격향상, 정신, 지성, 신체의 균형이 잡힌 발달을 도모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세계최대의 청소년단체입니다.



재일본한국 YMCA 는

재일본한국YMCA는, 서울YMCA에 이어 1906년, 동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조국의 수난기를 당해,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전년도에 폐쇄된 재일공사관을 대신해, 한국으로부터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의 보호, 일본어 교육, 하숙집의 제공, 진로상담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2.8독립선언」이 상징되는 것처럼, 가혹한 식민지통치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들의 인격형성의 장인 동시에, 독립운동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초로부터 성서연구회, 기도회가 열심히 진행되어, 창립 2년후에는 현 재일대한기독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고난의 시대에 교회와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재일본한국YMCA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일본YMCA동맹 쌍방에 가맹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YMCA연맹, 세계YMCA연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맹 / 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이중성을, 재일본한국YMCA에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활동, 일본어학교, 한일문화교류, 숙박연수사업 등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제·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여 『화해와 공생』의 역할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在日本韓国YMCA會館

— 和解와 共生 —

YMCA 在日本韓国YMCA

2·8獨立宣言記念資料室



獨立宣言을 主導한 留學生들

■ 在日本韓国YMCA ■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TEL 03-3233-0611 / FAX 03-3233-0633

<http://www.ymcajapan.org/ayc/>

mail : ayc@ymcajapan.org

기념자료실 개설목적

1906년의 창립이후 재일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걸음을 진행해 온 재일한국YMCA는, 다음 세기도 재일한국인을 비롯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일외국인,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함께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시야를 한층 넓혀 『화해와 공생』 운동을 한일, 아시아로부터 세계로 확대할 것을 확인하고 본회 창립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얻어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재일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할 2.8독립선언운동은 그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연대 밑에 3.1 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회운동, 국내외의 민족독립운동으로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2.8독립선언으로 체포당한 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본인 변호사들이 열심히 진력하였으며,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했던 일본인 지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참된 한일 공생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계발하는 장으로서, 사람과 문화의 만남과 배움의 장으로서, 『화해와 공생』의 활동을 확충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 독립선언
記念資料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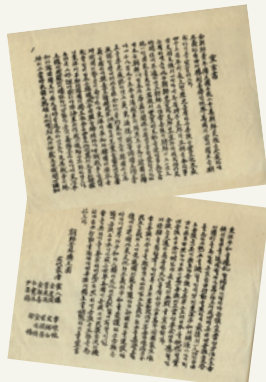
獨立宣言記念碑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2.8독립선언』

1914년에 발발한 제1차세계대전은 장기화되었고, 구미 열강들을 피폐시켜 겨우 1918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전쟁중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약소민족들에게 크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은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정보교환과 국제정세 분석을 통하여 민족독립운동에는 최적인 시기라고 판단하였으며, 감시가 심한 속에서 연말에서 연시에 걸쳐 여러 명목을 붙인 회합과 집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해 갔습니다.

동경에서는 30년만이라고 하는 큰 눈이 내린 1919년2월8일, 중심멤버들은 아침부터 모였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된 독립선언문,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를 일본 귀족원, 중의원의 의원들, 정부 요인들, 각국 주일대사들, 내외언론기관 앞으로 우송했습니다. 이날 오후2시부터는 재일본동경조선YMCA (현 재일한국YMCA - 이하 YMCA)의 강당에서 「조선유학생 학우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獨立宣言文

회장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유학생 (약 400~600명)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총회 개최선언이 끝나자마자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자는 「긴급동의」의 소리가 일어나, 독립단 대표 11명의 서명이 들어간 독립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난입하여 지도멤버들의 일제검거가 시작이 되어 사명을 가지고 일본에서 탈출했던 2명을 제외한 9명이 체포당하고 말았습니



獨立宣言의 舞臺였던
當時의 會館

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은 계속되어 갑니다. 이 『사건』은 일본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도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체포를 벗어난 학생들의 다수가 조선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독립만세 소리가 메아리치는 『3.1독립운동』 전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중국의 5.4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체포당한 유학생들의 지원활동을 위하여 당시 YMCA 백남훈총무가 중심이 되어 모금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입도 포함하여 정기적인 면회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이해하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지원을 청하였으며, 花井卓藏, 布施辰治를 비롯하여 탁월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엄한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검사의 논고를 모두 논박했으며, 결국 출판법 위반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3.1독립운동 이후, YMCA를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간주한 일본정부는 1919년말 YMCA 건물을 일본조합교회의 관리 밑에 두고자 했지만 유학생들의 큰 저항, 吉野作造 등의 비판에 맞아 그 실현은 저지되었습니다. 内村鑑三과 절친한 친구관계였던 유일한 조선인이었다고 평해진 金貞植 초대 YMCA 총무와의 교류, 吉野作造가



白南薰



布施辰治

친우라고 칭한 白南薰과의 신뢰관계의 깊이로 알 수 있듯이, 심히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훌륭한 교류의 축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동대진재와 조선인학살

1923년9월1일 정오전, 관동지방남부에 큰 지진이 일어나 東京, 神奈川을 중심으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0만명을 넘는 큰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우물에 독을 던졌다.」, 「강도, 강간, 살인을 범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재향군인이나 자경단, 군대, 경찰에 의해 「조선인 사냥」이 시작되어 약6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YMCA는 동경교회와 협의하고 재동경천도교청년회와 함께 「재해동포위문단」을 조직, 구제품 배포, 학살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익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살동포추도회는 그

후에도 오래 각 교회들과 합동으로 계속되었으며, 현재 매년9월1일일본 東京YMCA와의 합동기도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東京YMCA에서는 진재의 익년, 賀川豊彦, 小崎弘道 등이 발기인이 되어 「조선인 및 중국인 학살 참회기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上) 関東大震災
朝鮮人暴動虚偽記事
(下) 関東大震災
被災後 YMCA
旧会館跡地